

1-7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을 이을 자라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된 율법 아래 있게 된다 - 율법을 이을 자가 장성하게 되면 율법을 이을 자로서 의 권리를 되찾아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에서 벗어나듯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심이 이루어진 지금 장성한 자로 하여금 믿음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있다.

8-11 종으로 돌아가려는 자의 어리석음

‘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것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얽매어 있는 것으로 규정지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계속 침잠해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말한다.

12-20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고뇌

‘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보였던 사랑을 회상하며 복음 전도자와 성도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사도로서의 고뇌를 피력하며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다.

21-31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갈라디아서의 중심 사상을 밝힌 3,4 장을 마무리 하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다- 계집 종 하갈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종속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이 복음에 종속되며 선기는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율법 주의 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핏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집종의 아들은 율법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이 율법 역시 구원이라는 율법을 얻지 못한다.